



2008학년도 해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1. '현금 영수증'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1>과 같이 글감을 모은 후, 이를 바탕으로 <보기2>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글감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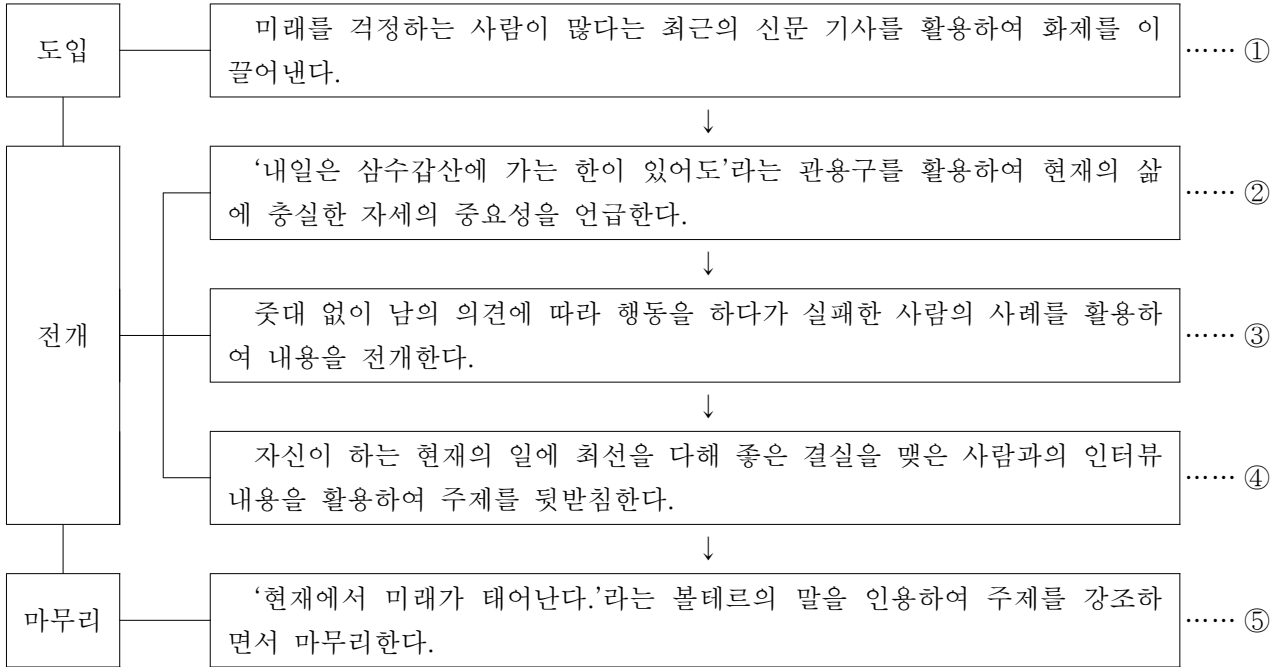
<보 기 1>

- ㄱ.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ㄴ.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된 지출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 ㄷ.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되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 ㄹ.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성실한 소득 신고를 유도한다.
- ㅁ.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다.
- ㅂ.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때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별로 없다.
- ㅅ. 발급 받은 현금 영수증에 대한 현금 영수증 복권 추첨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보 기 2>

개요	글감	
I. 서론 - 현금 영수증 제도의 시행 배경	→ ㄱ, ㄴ ①
II. 현금 영수증 발급이 미진한 이유		
1. 자영업자의 측면	→ ㅁ ②
2. 소비자의 측면	→ ㅂ ③
III. 현금 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자영업자의 측면	→ ㄷ, ㅅ ④
2. 소비자의 측면	→ ㄴ ⑤
IV. 결론 -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촉구		

2.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 <보기>는 학급 신문에 실을 ‘나의 가족 소개’라는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일곱 명의 가족이 단독 주택에서 ㉠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족 수가 많냐고요? 우리 집은 삼남매인데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대가족인 셈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부러우실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으로 가풍을 세워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할머니는 참 자상하세요. ㉡ 저를 위해 간식과 방청소도 도와 주십니다. ㉢ 할머니 친구 분도 손자들에게 잘해 주신다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제 마음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맛별이를 하시는 부모님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쓰십니다. ㉣ 그래서 참 바쁘신 중에도 다른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일일이 확인하시고 챙겨 주시곤 합니다. 주말에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 ①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오순도순’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필요한 성분이 누락되었으므로 ‘간식과’를 ‘간식도 챙겨주시고’로 고쳐야겠어.
- ③ ㉢은 글 전체의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은 앞뒤 문장의 연결을 고려할 때, ‘그런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⑤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나와 형제들’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도 추가해야겠어.

4. <보기>를 바탕으로 ‘부사어’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부사어는 문장의 부속 성분으로, 용언이나 관형어 또는 다른 부사어 같은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부사어가 있다.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다르다’나 ‘주다’와 같은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의 경우에는 생략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된다.

- ㄱ. 장미가 참 예쁘다.
- ㄴ.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 ㄷ. 그는 애인에게 반지를 주었다.
- ㄹ. 다행히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다.
- ㅁ. 올해는 비가 참 많이 내린다.

- ① ㄱ의 ‘참’과 ㄷ의 ‘참’은 부사어를 수식하고 있다.
- ② ㄱ의 ‘참’과 ㄹ의 ‘다행히’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 ③ ㄴ의 ‘아주’와 ㄹ의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 ④ ㄴ의 ‘아주’와 ㄷ의 ‘애인에게’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이다.
- ⑤ ㄷ의 ‘애인에게’와 ㅁ의 ‘많이’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동서고금을 통해 볼 때, 이론과 실천의 문제는 학문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어 왔다. 삶에 있어서 실천만을 중시하면 더 나은 삶을 향해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시행착오의 고달픈 반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론만을 중시한다면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지는 몰라도, 삶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서, 이론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했던 입장을 우리는 ㉠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실천적인 덕을 통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실천적인 덕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실천적인 덕에 의해 선한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과 실천을 구분하고,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덕이 실천적인 덕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론을 중시하는 서구적 전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 칸트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감성의 틀과 오성의 틀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실천적인 행동은 이러한 형식적인 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삶은 일정한 틀과 제한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행동은 이 틀을 넘어서서 삶의 영역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엄밀한 수학 계산조차도 일정한 사회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행동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천을 분리된 것으로 보았지만, 실천은 이론을 능가하는 동시에 이론보다 선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관점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진단해 볼 때, 현대는 극단적으로 이론이 우세한 듯하다. 이론에 근거한 서구적인 분석적 사고는 자연 과학 만능의 시대를 초래하였고 종래에는 하나의 분야를 이루고 있었던 예술, 종교, 학문 등도 서로 나누었으며, 사회마저 매우 다양한 계층들로 세분화하였다. 이렇듯 서구적인 삶의 방식이 다분히 이론적이라면 전통적으로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삶의 방식은 실천적인 것이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사계절에 맞추어 사는 삶의 태도는 이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서구 문물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왔을 때 서구적인 분석적 사고 또한 밀려들어왔으며, 마침내 우리들의 삶의 방식조차 분석적인 사고에 물들어버리고 말았다.

삶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볼 경우,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 삶과 행동이 인간의 삶에서 전체적인 하나를 이루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이론은 실천의 근거를 제시하고 실천은 이론을 현실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화로운 삶의 전체성이 구성될 때 우리들은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5.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이론과 실천의 문제는 학문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어 왔다.
- ② 삶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
- ④ 근대 이후 한국적 삶의 방식은 실천 중심에서 이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 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6. ㉠과 ㉡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은 이성적인 사고는 실천적인 덕을 통해서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은 이론이 실천에 선행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론을 중시하는 서구적 전통의 기틀이 되었다.
- ③ ㉡은 실천적 행동은 인간의 감성이나 오성의 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 ④ ㉡은 실천이 이론의 영역에 의미를 부여하며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보았다.
- ⑤ ㉠과 ㉡은 모두 실천과 이론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에 들어갈 문장을 작성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가. [A]에 나타난 논지의 흐름을 고려할 것.
 나. 비유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
 다. 대구의 형식을 취할 것.

- ① 이론이 실천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실천은 이론을 현실화한다.
- ② 이론 없는 실천은 부실한 모래성이고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한 메아리이다.
- ③ 이론 없는 실천이 배고픈 소크라테스라면 실천 없는 이론은 배부른 돼지이다.
- ④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같다.
- ⑤ 이론 없는 실천이나 실천 없는 이론은 이빨 빠진 호랑이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복어들,
 복어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캐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복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복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귀가 떡떡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복어」 -

(나)

㉠ 횃집 수족관 속 우글거리는 산낙지
 푸른 바다 누비던 완강한 접착력의 빨판도
 유리벽의 두루뭉실함에 부딪혀
 ㉡ 전투력을 잃은 채 퍼질러앉은 지 오래
 가쁜 호흡의 나날을 호물호물 살아가는 산낙지
 주인은 부지런히 고무 호스로 뽀글뽀글
 ㉢ 하루분의 산소를 불어넣어 준다.
 산낙지를 찾는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
 여기 썩썩한 놈들이 있는덱쇼.
 히히 제발 그때까지만 살아 있어 달라고
 살아 있어 달라고
 그러나, ㉣ 헉헉대는 그들의 숨통 속으로
 단비처럼 달콤히 스며드는 저 산소 방울들은
 ㉤ 진정 생명을 구원하는 손길인가
 투명한 수족관을 바라보며 나는

투명하게 깨닫는다.
산소라고 다 산소는 아니구나.
저 수족관이라는 틀의 공간 속에는
생명의 산소도
아우슈비치의 독가스보다
더 잔인하고 음흉한 의미로
뽀글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

- 유하, 「체제에 관하여」 -

(다)

깊은 산 협곡에서 산짐승과 산(山)사람의
가파른 성품을 다독여 흐르는 물처럼 순치시키던
나무들이,
천지 사방 눈 씻고 보아도 흙 한 줌 안 보이는
색유리와 시멘트의 도시
거대한 빌딩 반질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이식(移植)되어 있다 때아닌 돌풍이라도 몰아치면 쓰러질세라
몇 개의 지주목에 단단히 허리를 묶인 채.

썩썩, 양옆으로 질주해 가는
날카로운 기계(機械)들의 굉음 속에서 불꽃 튀는 마찰을 일으키며
그악스레 기심(機心)을 품고 살던
나는 문득 저 검붉게 변색되어 가는 나무들에서
눈길을 땔 수가 없다 색맹의 눈알을 껌벅이며 회전을 멈춘
이 도시의 해와 달처럼 그 어디, 지향처가
보이지 않는다 물과 산에 깃든 덕(德)을 버리고
안팎으로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물결을 따라
거대한 인간 뗏목에 동승한 내가 가 닿아야 할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목발을 짚고 선 듯
지주목에 기대어 마지막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는 저 가련한 길벗은
차라리 은둔하라, 은둔하라, 일러주는 듯싶지만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황색의 차선에 이미 들어선
나는, 썩썩 검은 사신(死神)의 위세에 맞물려 돌아가는
작디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구르고
잠시 품어본 나무의 마음엔 목마른 톱밥만 가득 내려 쌓이고.

- 고진하, 「나무와 기계의 마음」 -

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이기주의로 인해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일상에서 관찰한 대상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물질문명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물질적 욕망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중심 소재의 외적 속성을 시상 전개에 활용하고 있다.
- ②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갑작스러운 시상 전환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10. (나)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독자가 정리하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산낙지가 수족관에서 숨을 헐떡이며 퍼질러 앉아 흐물거리고 있다. ①
↓	
횃집 주인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를 산낙지에게 공급한다. ②
↓	
횃집 주인은 손님이 올 때까지 산낙지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 ③
↓	
이익 추구만을 생각하던 횃집 주인은 산소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다. ④
↓	
기능이 변질된 산소는 독가스보다 더 잔인하고 음흉한 의미를 지닌다. ⑤

11. (다)를 감상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문명의 굴레와 속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있군.
- ② 인간의 욕망보다 자연의 덕에 따르는 삶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군.
- ③ 인간의 이기적 속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④ 나무가 현재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인간이 물질문명에 파묻혀 살아왔기 때문이군.
- ⑤ 욕망 때문에 지향점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군.

12. (다)에서 ㉠~㉤에 대응하는 시구를 찾아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대리석 바닥
- ② ㉡ :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물결
- ③ ㉢ : 몇 개의 지주목
- ④ ㉣ : 가련한 길벗
- ⑤ ㉤ : 물과 산에 깃든 덕(德)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에는 범죄에 대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사적 제재인 복수가 행하여졌다. 그러나 복수는 일회적인 제재에 그치지 않고 꼬리를 문 복수의 연쇄를 낳는다. 이러한 사적 복수가 공적 형벌로 ㉠ 대치된 것은 인류 문명이 이론 커다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형벌은 국가가 완전히 독점하게 되었다. 끝없는 피의 복수는 법적 평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왜 형벌을 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관점을 살펴보자.

형벌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적으로, ‘악에 대한 악’으로서 부과된다는 ‘응보론’이 있다. 이러한 견해를 표명한 대표적인 사람은 칸트이다. 그는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을 전제로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였다. 형벌의 경우에도 인간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다른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따라서 형벌은 자기 목적적이어야 하며, 형벌의 질과 양은 저지른 해악과 똑같은 해악, 즉 응보로서의 ‘동해보복(同害報復)’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일반인이 두려움을 느껴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형벌은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는 ‘일반 예방론’이 있다. 근대적 형태의 일반 예방론은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벤담은 인간을 쾌를 추구하고 불쾌를 피하는 존재로 ㉢ 상정하고, 쾌와 불쾌의 계산을 통해 쾌가 큰 방향으로 행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였다.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범죄를 통하여 얻는 쾌’와 ‘형벌을 통하여 얻는 불쾌’를 비교하여 헤아려 봄으로써 공리 계산을 하는 것이 인간이란 점을 이 이론은 전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 ‘특별 예방론’이 있다. 플라톤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처벌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속죄, 개과천선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인간 행동의 결정 인자들은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등 여러 측면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법익을 박탈하는 형벌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 인자의 제거 내지 개선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자가 갖는 위험성이 개선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고, 개선 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자의 심리나 사회적 환경의 교정,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절충하여 형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선 응보론은 형벌 부과 대상과 형벌의 상한을 설정해 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상한의 범위 내에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구성하는 데는 일반 예방론과 특별 예방론의 관점이 원용되고 있다. 이렇듯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관념상의 관심사가 아니라 형사제도를 구성하고 ㉥ 운용하는 데에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고 있다.

13.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형벌 집행의 효과와 부작용
- ② 형벌 이론의 변천 과정과 현황
- ③ 형벌과 범죄 예방과의 상관관계
- ④ 국가에 의한 형벌권의 근거와 정당성
- ⑤ 형벌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의

14. 위 글에 <보기>의 내용을 추가하려 할 때, 그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형벌은 사람들에게 그 사회의 법질서가 언제나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준다. 비록 범죄로 인하여 법질서가 침해될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형벌은 언제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범죄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 ① 옹보론의 입장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 ② 일반 예방론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그 주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
- ③ 특별 예방론의 견해를 다른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데 활용한다.
- ④ 기존의 이론과 상반된 새로운 견해를 보여주는 데 활용한다.
- ⑤ 기존의 이론을 절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한다.

15. <보기>에 대한 반응 중, ㉠과 관련이 깊은 것은? (3점)

<보 기>

15세인 오○○는 소년 가장이다. 2년 전 그의 부모님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노환으로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으로는 할머니의 약값을 대기도 버거웠다. 어느 날 그는 배가 고프다고 조르던 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가게에서 빵을 훔쳤다. 주인에게 발각된 그는 결국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기사화 되자 소년을 돕겠다는 도움의 손길이 줄을 이었다.

- ① 법의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소년이 범한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
- ② 가게 주인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을 소년이 보상하게 하는 정도에서 서로 합의하게 해야 한다.
- ③ 다른 사람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년은 법에 규정된 대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 ④ 불우한 환경에서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주위의 도움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없으므로 훈방 조치해야 한다.
- ⑤ 소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므로 소년으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1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음.
- ② ㉡ :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 ③ ㉢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④ ㉣ : 일을 꾸려 나감.
- ⑤ ㉤ :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씬.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장 시량의 아들 갑준은 김씨와 혼인하지만, 첫날밤에 괴한에게 살해당한다. 누명을 벗기 위해 김씨는 남장을 하고 집을 나와 갑준의 계모 유씨 부인이 범행을 사주했음을 밝혀낸다. 장 시량은 유씨 부인을 죽이고 세상을 등진다. 한편, 유복자를 낳은 김씨는 혼자 힘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킨다. 그 후 숨어살던 장 시량을 찾아 집으로 모셔와 지성으로 봉양하여 시아버지인 장 시량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김씨는 장 시량의 외로움을 덜어주고자 화씨를 첩으로 맞아들이게 한다.

화씨가 이미 장 시량의 사랑함을 입어 별실의 지위에 이르니, 김씨에게 서모(庶母)라. 대가(大家)의 권세를 잡지 못하므로 분하고 답답한 마음이 많으나 김씨의 정성이 지극하고 행동거지가 엄숙하니 감히 누를 길이 없고, 또한 장 시량에게 이간질도 경솔히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욱 조심하여 저의 도리를 극진히 하니, 그 마음을 아는 이 없더라.

속담에 이르기를 (㉠) 하더니, 화씨가 김씨의 은혜를 입고 겸하여 어려서부터 한가지로 성장하여 정의가 친밀한지라, 그 속에 다른 뜻이 있을 줄이야 귀신인들 어찌 알겠노뇨. 겸하여 평일에 안색이 화평하고, 언어가 공손하며, 행동이 유순하고, 정의가 더욱 친밀하게 지내니 조금도 의심할 이 없더라.

차설, 장 시량의 후취* 유씨 부인의 동생이 있으니 이름은 득룡이라. 학업에 힘써 문식이 유명하더니, 경사에 올라가 과거하여 일찍이 청운에 득의하여 임금을 섬겨 공명에 나아가 있을 제, 그때에 유씨 부인의 상변(喪變)*을 듣고 심히 참혹하고 괴이하다고 여기더라.

이때에 관동 태수를 제수하시매 가히 금상첨화라. 관부에 도입한 후에 장 시량으로 종종 왕래하거늘, 화씨가 은근히 헤아리되, / ‘이는 천재일시(千載一時)의 기회라.’

이에 은근히 밖으로 유 태수와 은밀히 결탁하고 안으로는 장 시량의 뜻을 받기를 더욱 힘써 ㉡ 김씨의 권세를 빼앗으려 하여 먼저 태수에게 기별하기를,

“이왕 유씨 부인의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니, 그 실상은 김씨의 사특함이 많은데, 다만 장 시량이 후덕하고 자애하기로 속음을 깨닫지 못함이라. 다른 날 이를 듣고 보면 차차 아오실 일이 있으리이다.”

이르니, 유 태수 본디 유씨 부인의 사적이 모호함을 의심하여 혹 원통함이 있는가 짐작하였더니, 이때 화씨의 말을 듣고는 더욱 의심하더라.

하루는 화씨가 장 시량의 침석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유씨 부인의 말이 나오는지라. 화씨 참담한 기색을 띠어 은근히 탄식하다가 말하되,

“세상일이 증거라 하는 것도 없지 아니한 것이로다. 유씨 부인인들 지하에서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오.”

장 시량이 그 말의 뜻을 다시 물은즉, 화씨 백배 사죄하여 아뢰기를,

“경솔히 발한 말이니 과연 뜻이 없거늘, 이와 같이 다시 물으시니, 그 죄가 죽기를 청하나이다.”

장 시량이 강박하지 못하여 묻기를 그치고 지나간 일을 날날이 생각한 뒤 말하기를,

“갑준의 머리를 비록 광에서 찾았으나 내 일찍이 유씨 부인에게는 한 말도 문초한 것 없이 죽인 것이 너무 촉급하였도다. 경솔함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생각할 적에 화씨가 잠든 줄 알고 탄식하다가 촉급하고 경솔함을 한탄함이 부지중에 입 밖에 나가거늘, 화씨가 그제야 장 시량이 김씨를 의심하는 마음을 짐작하고,

‘이제는 내 계교를 행하리라.’

이 생각으로 때때로 김씨의 단점을 찾아내 만들 새, 매양 제 입으로 바로 일컫지도 아니하며, 장 시량에게 바로 말하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을 시켜 장 시량의 귀에 들어가면 의심될 만큼 과거의 이야기를 하니, 과연 장 시량이 의심되는 사단이 점점 깊어 전후의 일을 생각해 본즉, 신혼 여자가 남복으로 나서서 주막에 주유한 일도 규중 부녀의 행사가 아니요, 또한 다시 남복으로 주유팔방(周遊八方)*한 일도 여자로서는 못할 일이라. 생각할수록 두려운 마음이 일어 평일에 사랑하던 마음이 풀린 즉, 자연히 사색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지라.

이로부터 화씨가 틈을 얻어 날마다 간교한 말로 참소(讒訴)하되,

“어린 신랑이 첫날밤을 다 지내지 못하였는데, 수태하여 남아를 낳은 것이 천하에 희한한 일이라.”

겉으로는 좋은 말로 하나 속으로는 의심이 되게 한즉, 장 시랑이 점점 의심이 깊어 유복자인 해룡도 진정 손자로 알지 않으니, 김씨 그 사색을 짐작하고 분한 마음이 측량할 길 없으니, 하늘과 땅에 두고 하소연하며 귀신에게나 증거할 일이라.

즉시 자결하여 세상을 잊고자 하다가 다시금 생각한즉, 경솔히 죽으면 의심이 더욱 들어 누명이 중할지라. 억지로 잔명(殘命)을 보전하고 있다가, / ‘무슨 생각이 있으리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탄식으로 일을 삼아, 하늘이 무심하심을 원망하더라.

* 후취(後娶) : 두 번째 부인을 얻음.

* 상변(喪變) : 사람이 죽은 사고

* 주유팔방(周遊八方) : 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님.

-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

17. 위 글에 드러난 핵심 갈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집안의 권세를 둘러싼 김씨와 화씨의 갈등
- ② 김씨의 행적을 둘러싼 장 시랑과 화씨의 갈등
- ③ 계모 유씨 부인과 전실 자식인 갑준 사이의 갈등
- ④ 며느리의 행적을 의심하는 장 시랑과 김씨의 갈등
- ⑤ 유씨 부인의 죽음과 관련된 장 시랑과 유 태수의 갈등

18.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유씨 부인은 장 시랑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인물이다.
- ② 유 태수는 불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세하려는 인물이다.
- ③ 장 시랑은 주관이 뚜렷해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인물이다.
- ④ 김씨는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타파하려는 인물이다.
- ⑤ 화씨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19.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② 내 밥 먹은 개가 발뒤축을 문다.
- ③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 한다.
- ④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⑤ 오랜 원수를 갚으려다가 새 원수가 생겼다.

20. ㉡을 위해 화씨가 사용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유 태수로 하여금 유씨 부인의 죽음에 의혹을 품도록 부추기기
- ② 장 시랑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김씨와 가식적으로 친한 척하기
- ③ 김씨의 단점을 찾아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장 시랑에게 전달하기
- ④ 유복자로 태어난 손자 해룡의 비행을 들춰내어 장 시랑에게 고자질하기
- ⑤ 말실수를 가장하여 장 시랑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경솔함을 후회하도록 만들기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문화는 ‘생활양식’ 또는 ‘인류의 진화로 이룩된 모든 것’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언어는 문화의 하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문화의 하위 개념에 속하면서도 문화 자체를 표현하여 그것을 전파, 전승하는 기능도 한다. 이로 보아 언어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와 세계 인식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A] 가령 ‘사촌’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cousin’으로 이를 통칭(通稱)하는 것을 우리말에서는 친·외·고종·이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친족 관계에 대한 표현에서 우리말이 영어보다 좀 더 섬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친족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하여 차별 내지 분별하려 한 우리 문화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어권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문화에 따른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낱말에서만 아니라 어순(語順)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말은 영어와 주술 구조가 다르다. 우리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그 뒤에 서술어가 온다. 이에 비해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 뒤에 목적어가 온다. 우리말의 경우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와 ‘너’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밝히는 것에 비하여, 영어에서는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나온 뒤에 목적어인 ‘너’가 나온다. 이러한 어순의 차이는 결국 나의 의사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먼저 보이는 우리들과, 나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먼저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것에서도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영어에서는 ‘You do it, please.’라고 하고, 우리말에서는 ‘할아버지께서 해 주세요.’라고 한다. 영어에서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가리킬 때 ‘You’라는 지칭어를 사용하고, 서술어로는 ‘do’를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상대방을 가리킬 때, 무조건 영어의 ‘You’에 대응하는 ‘당신(너)’이라는 말만을 쓰는 것은 아니고 상대에 따라 지칭어를 달리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영어의 ‘do’에 대응하는 서술어도 상대에 따라 ‘해 주어라, 해 주게, 해 주오, 해 주십시오, 해 줘, 해 줘요’로 높임의 표현을 달리한다. 이는 우리말이 서열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순한 음성 기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가 용해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한국어라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구상에 있는 여러 언어 가운데 개별 언어 한 가지를 쓴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어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세계 인식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에 대한 애정은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고 전파, 전승하는 기능을 한다.
- ② 문화의 하위 개념인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③ 영어에 비해 우리말은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다.
- ④ 우리말에 높임 표현이 발달한 것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 ⑤ 우리말의 문장 표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생각을 우선시한다.

22.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모르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출이 경제 활동의 근간인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를 못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삼아야 합니다.

- ①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 ②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다면 외국인들도 쉽게 우리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신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 ③ 언어는 단순히 의사 표현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말대로 했다가는 우리의 민족 문화는 위태로워질 겁니다.
- ④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두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 ⑤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고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 교육을 잘 시키면 되지, 굳이 영어를 공용어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23. [A]와 유사한 예를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것을 미국인들은 'house', 중국인들은 '家', 프랑스인들은 'maison'이라는 말로 지칭한다.
- ② 쌀을 주식으로 했던 우리는 '쌀', '벼', '밥'을 구별해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영어권에서는 이를 뜻하는 단어로 'rice' 하나만을 사용한다.
- ③ 우리말 '섬'을 중세 국어에서는 '섬[섬]', 고대 일본어에서는 'しま[시마]'로 발음하였다. 이로 보아 우리말과 일본어는 친근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영어의 'milk'는 1음절 어휘인데, 우리말은 음절 구조상 음절의 끝소리에 자음과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말에서는 모음 'ㅡ'를 첨가하여 2음절인 '[밀크]'라고 발음한다.
- ⑤ 영문법에 따르면 'The three beautiful flowers'는 가능하지만 'The beautiful three flowers'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세 송이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세 송이 꽃'이나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손가락에 붙이는 밴드가 매끄러운 피부에 잘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쿨롱의 힘이 작용하려면 전자가 남거나 모자란 상태의 이온처럼 물체가 전하를 띠어야 한다. 그렇다면 밴드도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인가? 물 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에 대해 살펴보자.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하나의 산소 원자 양쪽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산소를 중심으로 104.5도로 꺾여 있어 마치 부메랑처럼 생겼다. 그런데 물 분자 안에 들어 있는 전자는 산소와 수소의 ㉠ 전기음성도 차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전기음성도는 특정 원자가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산소 원자의 전기음성도는 수소 원자의 전기음성도보다 크다. 따라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은 대칭적이지 않고, 전자가 산소 원자 쪽으로 쏠려 산소 원자 부근에는 음전하가, 수소 원자 부근에는 양전하가 만들어진다.

물 분자처럼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분자 하나가 양전하와 음전하로 갈려있는 상태를 쌍극자라 한다. 그리고 분자 안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생기는 정도를 ㉡ 쌍극자모멘트라 한다. 쌍극자모멘트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벡터량이다. 따라서 각 쌍극자가 만드는 쌍극자모멘트의 벡터합을 구하면 분자 전체의 극성을 알 수 있다. 부메랑 구조를 가진 물 분자의 쌍극자모멘트 합을 구해 보면 산소 원자 쪽이 음전하를 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 분자처럼 쌍극자모멘트의 합에 의해 극성이 생기는 분자를 극성분자라 한다.

분자에 극성이 생겼으니 이제 쿨롱의 힘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막대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막대자석은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반대되는 성질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극성분자처럼 쌍극자가 있는 셈이다. 막대자석 여러 개를 이어 붙여 큰 구조물을 만든다고 해 보자.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므로 N극과 S극을 이어 붙여야 한다. 극성분자인 물도 마찬가지다.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는 다른 물 분자의 음전하를 띤 산소 원자 쪽에 가까워지려고 한다.

그런데 공유결합의 힘보다는 약하지만, 극성분자는 ㉣ 쌍극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자들을 적절히 배치하면 분자들 사이에 쿨롱의 힘이 작용한다. 이처럼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 쌍극자간 힘이라 부른다. ㉤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물질의 점성이나 상태를 결정한다. 예컨대 물 분자들이 쌍극자간 힘으로 촘촘히 결합되어 있으면 얼음이 되고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지다가 끊어지면 수증기가 된다.

밴드의 접착력도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밴드의 접착면은 극성을 강하게 ㉥ 띤 고분자물질로 처리되어 있어 피부에 잘 붙는다. 밴드가 떨어지는 이유는 밴드와 피부를 이루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 둘을 떨어뜨리려는 외부의 힘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밴드 외에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분자간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간접착제로 깨진 그릇을 붙일 수 있는 이유도 순간접착제와 그릇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사이의 힘이 손으로 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이다.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특수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새로 발견된 과학 원리의 응용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③ 사례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보편적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 ④ 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특정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 ② ㉡ : 분자 전체의 극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척도가 된다.
- ③ ㉢ : 쌍극자모멘트에 의해 극성이 생긴 분자를 말한다.
- ④ ㉣ :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나타나게 되는 상태다.
- ⑤ ㉤ : 극성이 없는 분자 사이에도 작용한다.

26. ㉠의 원리를 활용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프라이팬에 음식물이 잘 들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라이팬 표면을 분자간 힘이 매우 작은 테플론이라는 물질로 코팅하였다.
- ② 섬유 올 하나하나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수많은 돌기를 달아서 물방울이 퍼지지 못하고 표면에 맺히도록 하는 방수 옷감을 만들었다.
- ③ 녹차 티백의 경우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깔끔하게 우려내기 위해서 표면에 미세한 기공이 있는 마닐라삼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 ④ 물체와 부딪쳤을 때의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속철도 앞부분에 강도가 뛰어난 육각형 구조의 벌집처럼 생긴 충격 완화 장치를 장착하였다.
- ⑤ 벨크로 테이프는 마음대로 붙였다 떼었다를 할 수 있도록 한쪽 면에는 끝이 휘어진 수많은 갈고리들을, 다른 면에는 둥근 고리들을 달아놓았다.

27. ㉠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2점)

- ① 일에 전문성을 띠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 ② 미소를 띤 얼굴을 본 순간 화를 낼 수 없었다.
- ③ 그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작전에 투입되었다.
- ④ 노기를 띤 그의 얼굴을 보자 말문이 막혔다.
- ⑤ 그는 흥조를 띤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침침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네.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

(나)

춘사(春詞) 6

夕석陽양이 빛겨시니 그만하야 도라가자
돈 디여라 돈 디여라
岸안柳류汀정花화*는 고비고비 새롭고야
㉠ 至지匆국忿총 至지匆국忿총 於어思사臥와
삼공(三公)을 불리소냐 만사(萬事)를 싱각하랴

하사(夏詞) 2

㉡ 년넙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籊약笠笠은 씨 잇노라 綠綠蓑사衣의 가져오냐
至지匆국忿총 至지匆국忿총 於어思사臥와
㉢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추사(秋詞) 4

그러기 멧는 밧기 못보던 뵈 뵈는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흐려니와 取취흔 거시 이 흥흥이라
至지匆국忿총 至지匆국忿총 於어思사臥와
㉣ 夕석陽양이 빛이니* 千천山산이 錦금繡수로다

동사(冬詞) 8

㉤ 물ㄹ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흔고
빅 킷여라 빅 킷여라
머흔 구름 한티 마라 세상을 ㄹ리온다
至지匆국忿총 至지匆국忿총 於어思사臥와
波과浪랑聲聲을 厭염티 마라 塵진喧喧*을 막는도다

* 岸안柳류汀정花화 : 강가의 버드나무와 물가의 꽃

* 빛이니 : 눈이 부시니

* 塵진喧喧 : 티끌과 왁자지껄함, 즉 세속의 소리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다)

이러한 때—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 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授受)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에 영일(寧日)*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卑小)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실 이즈음의 신록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신록을 대하고 앉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 낸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티끌—나의 모든 욕망과 굴욕과 고통과 곤란—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다음 순간, 별과 바람과 하늘과 풀이 그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나의 빈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고이고이 들어앉는다. 말하자면, 나의 흥중에도 신록이요, 나의 안전(眼前)에도 신록이다. 주객일체, 물심일여(物心一如)라 할까, 현요(眩耀)*하다 할까. 무념무상(無念無想), 무장무애(無障無礙), 이러한 때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가진 듯이 행복스럽고, 또 이러한 때 나에게서는 아무런 감각의 혼란도 없고, 심정의 고갈도 없고, 다만 무한한 풍부의 유열(愉悅)*과 평화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때에 비로소 나는 모든 오욕과 우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나의 마음의 모든 상극과 갈등을 극복하고 고양하여, 조화 있고 질서 있는 세계에까지 높이 오른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 영일(寧日) : 일이 없이 평화스러운 날

* 현요(眩耀) : 눈부시고 찬란함.

* 유열(愉悅) : 유쾌하고 기쁨.

- 이양하, 「신록 예찬」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세속적 욕망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속함을 대조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유유자적하게 자연에 묻혀 사는 흥취가 드러나 있다.

29.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치원은 열두 살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열여덟 살에 과거에 급제한 후 뛰어난 문장가로 인정받았다. 이후 당에서 귀국한 그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경륜을 펴 보려 하였다. 그는 육두품으로서의 최고의 관직인 아찬에 올라 개혁에 힘썼지만 사회 모순을 외면하던 진골 귀족은 이를 받아들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그의 실망과 좌절은 아주 컸다. 그는 40여 세에 관직을 버리고 은거의 길을 택했다.

- ① ‘산’은 시적 화자가 은거하는 공간이 되겠군.
- ② 시적 화자가 은거하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시비하는 소리’를 차단하고 싶은 심리가 드러나 있군.
- ④ 뜻을 펼치지 못한 시적 화자가 선택한 길은 결국 현실 도피군.
- ⑤ 개혁을 외면하는 현실을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라고 표현했군.

30.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의성어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② ㉡ :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자연과 합일된 경지가 나타나 있다.
- ④ ㉣ :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화자와 대조적인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31.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신록이 주는 혜택을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신록을 대한 후의 정화(淨化)된 경지가 나타나 있다.
- ③ 신록과 함께 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 ④ 신록과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신록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

32. (나)의 시어 중, 물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2점)

- ① 삼공(三公)
- ② 靑淸籟약筍립
- ③ 그러기
- ④ 낙시질
- ⑤ 波과浪랑聲성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옆의 그림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용감하게 독약을 마시기 바로 직전 상황을 그린 ㉠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이다. 당시 상황을 마치 사진으로 찍은 듯이 실감나게 화폭에 담았다. 마지막 연설을 하는 듯한 소크라테스와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연극배우처럼 각자의 슬픔을 다양한 포즈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고전주의 화가는 각각의 인물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서로 긴밀하게 조직될 수 있도록 인물들의 연기를 연출하고 있다.



화면 전체의 색채와 명도를 살펴보자. 화면의 가운데 부분은 밝고 그 주변은 매우 어둡다. 그래서 마치 조명을 비추고 있는 연극 무대처럼 화면 가운데 있는 인물들이 두드러진다. 인물들은 대개 빨간색이나 노란색 계통의 밝은 색이나 따뜻한 색으로 되어 있고, 배경 건물이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보색 대비를 통해 밝고 따뜻한 색의 인물들은 앞으로 진출하고 어두운 녹색의 배경은 뒤로 빠지면서 인물들은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사람들이 고전주의 그림에 쉽게 몰입하는 이유는 마치 연극 무대처럼 강한 명도 대비와 색채 대비를 통해 시선을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이다.

고전주의 회화가 연극처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구도가 엄격하다는 ㉡ 데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소크라테스의 죽음」에는 등장인물이 많다. 얼핏 보면 등장인물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다고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그림을 이루는 조형 요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많은 조형 요소들이 기계 부속처럼 전체의 조화를 위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흩어진 별들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등장인물들의 머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결해 보자. 이렇게 연결한 구도의 흐름은 내려갔다 올라가고 둥글게 도는 등 쉬지 않고 리듬감 있게 이어져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그림은 멈추어 있지만 구도의 흐름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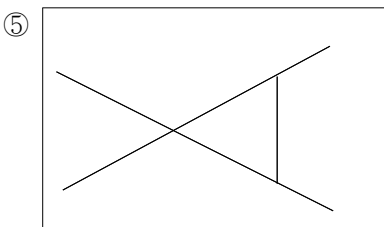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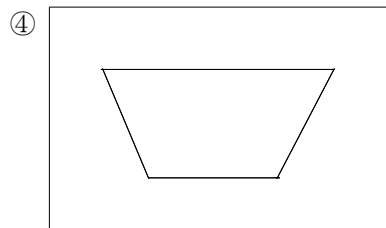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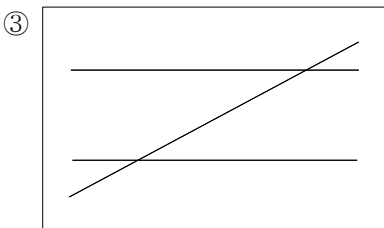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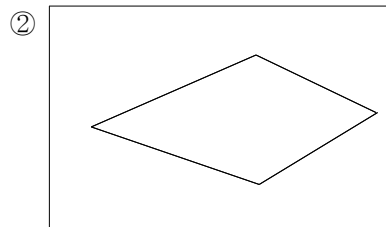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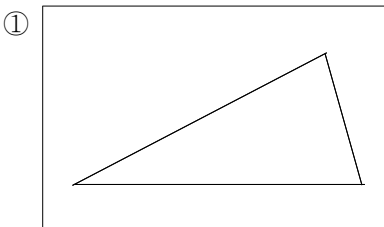
또한 이 그림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림 전체를 관통하는 커다란 직선들이 있다. 먼저 우리가 보기에 화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왼쪽 발에서 출발하여 소크라테스의 오른발을 거치고 독배를 건네는 사람의 왼쪽 팔꿈치를 거쳐 화면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로 연결되는 직선 구도가 있다. [A]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왼손에서 머리로, 다시 오른손으로 연결되는 직선 구도가 있는데, 이 선을 연장하면 독약이 든 잔을 거쳐 독약을 건네주는 이의 왼쪽 팔꿈치로 연결되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어깨로 이어져 있다. 이 외에도 소크라테스의 머리, 왼쪽 무릎, 왼발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오른손, 오른발도 하나의 축을 이루며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화면을 구성하는 조형 요소들의 짜임새 있는 구도는 하나의 완벽한 조형을 이루기 위해서 작가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형태일지라도 그것은 작가가 화면 전체를 장악하여 건축물을 세우듯이 조형 요소들을 구축한 결과라는 것, 그래서 하나의 조형을 만드는 것은 기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 고전주의 회화의 원리는 다른 여러 스타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본 원리이므로, 순수미술이나 디자인 또는 어떠한 장르에서라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

33.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양 강연을 한다고 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효과적인 인물 배치 방법
 - 연극 원리의 회화적 적용에 관하여
- ② 고전주의 회화와 연극 비교
 - 인물의 예술적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 ③ 고전주의 회화의 원리와 실제
 -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중심으로
- ④ 명도 및 색채 대비의 시각적 효과
 -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 ⑤ 고전주의 회화에 쉽게 몰입하는 이유
 - 사실적이고 실감나는 표현을 중심으로

34. [A]의 내용으로 볼 때, ㉠의 구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3점)



35. 광고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 구상한 내용 중, ㉠을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① 광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광고 전체의 조화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조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거야.
- ② 광고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연출해야 할 필요가 있어.
- ③ 의도성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자유분방한 인물들의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개성과 역동성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 ④ 소재들을 배치함에 있어서 리듬감 있게 이어지는 구도를 통해 단조로움을 피하는 동시에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해 보면 어떨까?
- ⑤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할 부분은 밝게 처리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은 어둡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

36. <보기>는 ㉠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찾아본 내용이다. <보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띄어쓰기가 잘못된 용례에 해당하는 것은? (2점)

<보 기>

‘-는데’와 ‘-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띄어쓰기이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 ‘-는데’는 붙여 써야 하지만,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과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데’가 합쳐진 표현인 ‘-는 데’는 띄어 써야 한다.

- ① 그 책을 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 ② 열쇠는 문을 여는 데 쓰는 도구다.
- ③ 그는 노래는 잘 부르는데 춤은 잘 못 춘다.
- ④ 그는 오직 졸업장을 따는 데 목적이 있었다.
- ⑤ 밖에 눈도 많이 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지 마세요.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하 기자는 한때는 한 달에 특종을 세 번이나 할 정도로 뛰어난 기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꼬치꼬치 따지며 파고드는 버릇도 없어졌고, 정치나 시국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한다. 그런 그에게 동네 영감들은 패륜아의 소행을 신문에 내달라고 부탁한다. 부정한 세무서 과장과 불의한 경찰서 형사를 혼쭐내었던 적이 있는 동네 영감들이지만 부모를 학대하는 막돼먹은 또철이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철이는 동네 영감들이 '또철이'라 이름 붙인 셰퍼드가 자기를 보고 짖어대자 이를 문제 삼아 경찰을 데리고 나타나서 따진다. 그리고 영하에게는 자신의 일을 기사화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울음을 그쳤던 매미가 또 짜이, 장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는, 더위에 내려앉을 것 같은 여름 한낮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한 줄기 시원한 분수였다.

매미는 지상의 생애 1주일 혹은 3주일을 살려고 땅 속에서 7년 내지 17년을 유충으로 기다린다는 것이다. 적어도 7년을 벌러 태어나 7일을 살다 죽는, 그 7일로 응축된 매미의 생애가 이상한 감상을 불러왔다. 짜이 하는 울음소리가 단순한 곤충의 울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 지나간 기간을 땅 속에서 버르고 별렀던 자신의 무슨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단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저 크고 우람한 소리는 그 짧은 생애 한순간 한순간을 아껴 내지르는 뭔가 그만큼 절실한 삶의 표출일 것이다.

매미 소리에 취해 있던 영하는 책상머리로 갔다. 아까 그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매미처럼 무슨 거창한 소리를 지르자는 것이 아니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끄적거리고 싶었다.

△ 개한테 사람 이름을 붙여 말썽이 되고 있다. 시내 ××동 골목 어귀에 몰려 지내는 노인들이 셰퍼드 예다 '또철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그 골목 안에 사는 사람 이름이 또철이어서 시비가 붙은 것.

△ 노인들은 사람 이름이라고 개한테 붙이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되레 큰소리인데, 그 또철이란 이가 평소 그 부모를 학대한다고 이 노인들이 뉘달하던 다음이라 그 이름 임자는 그게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 더구나, 그 또철이라는 셰퍼드는 사람 또철이만 나타나면 눈에 시퍼렇게 불을 켜고 잡아먹을 듯이 짖어 대는 바람에 화를 참다못한 또철 씨가 경찰까지 불러오는 등 골목이 사뭇 소란스러웠다.

△ 다섯 마리의 개를 거느리고 있는 이 영감들은 그 중 한 마리한테는 이토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토는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 이토 히로부미의 이토. 누구든지 이 영감들의 눈 밖에 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개한테도 그 사람의 이름이 붙을 판이다.

써놓고 보니 가십 기사가 될 것도 같았다.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고 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개한테 사람 이름을 붙인 이 사건은 교과서적인 기삿거리라 할 수도 있었다.

또철이의 잘못을 모두 폭로해 달라는 것이 노인들의 주문이었으므로, 그들의 요구에는 좀 빗나간 대로 할 얘기는 한 셈이다. 또 학대라는 말이 불효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았다. 의기양양하게 말하던 민 영감이 떠올라 혼자 웃었다. 영하는 기사를 바지 뒷주머니에다 챙겨 넣고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중략>

편집국에 들어섰다. 무슨 일인지 분위기가 싸늘했다. 모두 입을 봉하고 담배만 빼금거리고 있었다. 항상 생글거리던 문화부의 여기자마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대밭에서 와글와글 지저귀던 참새 떼들이 갑자기 지저귀던 소리를 뚝 그치는 경우가 있다.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이다. 그 정적 사이에서 한두 마리가 짹짹거리다. 다시 지저귀거나 모두 와르르 날아간다. 그 한두 마리가 짹짹거리는 소리는 괜찮다거나 위험하다는 신호인 모양이었다. 들판에서 끼룩거리며 먹이를 먹던 기러기 떼도 마찬가지로. 망보던 놈이 뭐라 길게 소리를 하면 먹이를 먹던 기러기 떼가 모두 고개를 쳐들고 소리를 뚝 그친다. 바로 그런 분위기였다.

그 때 정치부장이 국장실에서 나왔다. 우거지상이었다.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 무얼 쓰란 말이야?”

정치부장은 의자에 엉덩이를 내던지며 창밖을 향해 의자를 핑글 돌렸다.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영하에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다. 신문에 내기만 하면 저 죽고 나 죽겠다고 독기를 피우던 또철이의 눈이었다. 영하는 주머니에서 기사를 꺼내 슬그머니 휴지통에 넣어버렸다. 그가 무섭다기보다 귀찮았다. 뒤미처 골목 영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 줍쌀영감의 차가운 눈이 맨 먼저 떠올랐다. ㉡ 셰퍼드의 시퍼런 눈도 떠올랐다.

- 송기숙, 「개는 왜 짖는가」 -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외양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을 제시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특정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넘나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38. <보기>는 위 글에 대한 해설의 일부분이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이 발표된 1983년은 폭력적인 권력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던 시기였다. 주인공인 박영하가 정치나 시국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또철이의 악행을 기사화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작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당대 현실의 모습을 풍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신문기자인 박영하가 보여주는 모습은 표현의 자유와 욕망을 상실한, 무기력한 지식인 계층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①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는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있는 영하에게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② ‘노인들이 셰퍼드에다 ‘또철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폭력적인 권력에 대한 작가의 풍자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신문에 내기만 하면 저 죽고 나 죽겠다고 독기를 피우던 또철이’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과 대응될 수 있다.
- ④ ‘주머니에서 기사를 꺼내 슬그머니 휴지통에 넣어버린 것’은 현실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영하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 무얼 쓰란 말이야?’라는 정치부장의 말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당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9. <보기>는 위 글의 앞부분에서 생략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보기>를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임자 같은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뿔을 신문에 낸단 말이여? 개는 짓으라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개도 못 봐서 짓는 일을 신문기자가 손 개 얹고 있으란 말이여? 신문기자가 개 만도 못 한 줄 알아?”

- ① ㉠과 ㉡에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영하의 내면 심리가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② ㉠과 ㉡에는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영하의 비판 의식이 투영되어 있어.
- ③ ㉠과 ㉡은 또철이로 대표되는 불의한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 같아.
- ④ ㉠은 현실의 문제는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
- ⑤ ㉡은 폭력을 사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부당한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40. [A]가 <보기>를 바꿔 쓴 것이라 할 때, 바꿔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편집국에 들어섰다. 무슨 일인지 분위기가 싸늘했다. 모두 입을 봉하고 담배만 빼금거리고 있었다. 항상 생글거리던 문화부의 여기자마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잇을 만하면 터졌던 일이 또 터진 것 같았다. 나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내 자리를 찾아 갔다. 취재한 기사는 반드시 쓰는 김 기자의 침울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보도된 그의 최○○ 장관 관련 기사가 문제가 된 것 같았다. 예전에 기사가 문제가 됐을 때의 그런 분위기였다.

- ①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암시한다.
- ② 주인공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명히 파악하게 한다.
- ③ 서술의 초점을 전환하여 새로운 사건을 암시한다.
- ④ 서술 방식에 변화를 주어 긴장감을 해소한다.
- ⑤ 사건을 추가하여 침울한 분위기를 심화한다.